



불교의 정의는 소외계층 돌봄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6월 29일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서 지적

“한국불교가 사회참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왜 나오는가? 사회정의 실현이란 공정사회의 길목에서 불교는 사회철학의 새 차원을 열고 이념을 제시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돌봄이다.”

최근 이견희 삼성 명예회장의 삼성 부패 부패 적결 발언, 마이클 샌델 교수의 (JUSTICE) 열풍은 사회정의 실현과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시민윤리와 공정성의 원칙이 담보가 된 사회정의 실현에 앞서 그 이념적 바탕에 불교의 역할 수행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계종 승가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가 6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6월 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병기 교수는 “경쟁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종교계의 역할이 적극 요구되지만 불교계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한국사회는 아직 정의로운 사회가 아님이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박 교수의 이런 발언은 “자신의 지위나 부에 걸맞는 도덕성을 지니고 있는 나”로 평가하는 분배적 정의관에 따른 것이다. 박 교수는 “경제발전의 짧은 성취로 시민윤리를 내주어야 했고, 공정성의 원칙을 지도층부터 훼손하는데 앞장서는 참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연기의 독존주의, 즉 나의 자유·권리뿐만 아니라 사회 소수자의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정의 논의는 도시민민의 자녀나 외국인 노동자 등이 첫 번째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자연과 동물들에게 까지 사회정의의 고려의 대상 범

도 조용하며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법안 스님도 “그동안 우리는 국민들의 실질적 고통을 외면해 왔다. 그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정의실현을 위한 준비실천의 방법은 개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통 받는 개인이 나오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종학 교수도 “하소연 할 데가 있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 것 처럼 종교가 상처받는 서민들 앞에서 그들을 지켜준다면 한국사회는 보다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가 발제를,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 민경국 강원대 교수, 홍종학 경원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불교의 사회참여 위해선 연기적 독존주의 필요해 나의 자유와 소수자의 인간다움 보장이 사회 정의

담한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사회참여에 앞서 일차적으로 불교 사회철학과 이념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불교적 이념으로 연기적 독존주의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모든 사람은 개인의 존엄성인 독존주의를 기반으로 연기성을 통해 세상과

중요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교계의 역할로는 불자 다움을 제시했다. 박 교수가 제시한 불자 다움은 모든 존재자들에 대한 총체적 연민을 전제로 하는 자비실천의 자세다.

박 교수는 “이런 관점 하에 생명산업 상업화와 의료서비스 분배 문제 등에 대해서

대장경의 천년을 돌이켜 새 천년을

고려대장경 천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성료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와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6월 27~28일 대구 인터파크호텔에서 고려대장경 천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 스님은 개회사에서 “한역 대장경은 물론 티베트, 팔리 삼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언어들의 불전과 다양한 매체들의 정보들이 통합될 날이 멀지 않았다”며 “이번 행사는 다른 종교나 학문과의 관계 설정을 위한 유용한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대 정병조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장경의 전산화와 복원작업은 정보와 문화의 융화를 보여주는 전형이다. 이번 행사가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불교문화 심도 있게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축사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대대손손 영원히 전해질 것이지만 고려대장경의 활용은 오로지 후손들의 몫일 것”이라며 “이번 행사에서 현대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인류의 평화와 생명,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의 새로운 가치와 역사를 고려대장경에서 발견하고 의미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축사를 통해 “고려 초조대장경이 목판이라는 틀 속에 갇힌 무생명체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몸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드는 생명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꿔가자”고 말했다.

이러진 학술행사는 대장경을 >제1분과: 역경과 전승 그리고 전산화(오치아이 토시노리 일본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 교수, 정승석 동국대 교수, 김진학 금강대 소장, 고려대장경연구소 종림 스님) >제2분과: 언어와 역경 그리고 유포(가라시마 세이시 일본 장가대 교수, 신상환 인도 비스바바라피대 교수, 정진일 독일 쾰른대 교수, 두웨이장 캐나다 맥마스터대 교수) >제3분과: 고려대장경의 재조명(루이스 랭카스터 미국 버클리대 교수·사진), 이태승 위덕대 교수, 후야야마 토루 일본 교토대 교수, 석길암 금강대 연구교수) >제4분과: 동아시아에서의 대장경(장홍웨이 중국북경고궁박물관 연구원, 이부하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제5분과: 경전과 지역성(지루시 미국 포모나대 교수, 원혜영 대전대 외래교수) 등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관련기사 14면 조동섭 기자

이나는 기자의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한국불교, 리처드 기어 티베트 인권 호소 귀 안열어

조계종의 한 중진 스님...“리처드 기어는 달라이 라마의 특사였다”

할리우드 유명배우 리처드 기어의 방한 때 한국 불교계가 취한 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페이스북 부루나가 떠들썩하다.

한 회원이 한겨레신문(6월 30일자)에 보도된 ‘한국불교, 리처드 기어 티베트 인권 호소에 귀 안 열어’를 소개한 것.

한겨레신문은 “리처드 기어는 방한 중 영화배우로만 화제가 되는 상황에 답답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처드 기어는 지난 20여년 동안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대변자로서 중국 정부의 티베트 불교에 대한 탄압 등을 서구 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애써왔다”고 보도 했다.

이 신문은 또 6월 21일 리처드 기어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의 만남에서 ‘티베트’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조계종 내에서도 안타까움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조계종의 한 중진 스님의 말을 빌려 “리처드 기어는 사실상 달라이 라마의 특사나 다름없는 인물인데, 그를 할리우드 영화배우로만 대하고 정작 고통 받는 티베트불교와 달라이 라마에 대해 종교지도자로서 자비심을 담은 의례적 언급조차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리처드 기어의 통역을 맡았던 헤민 스님이 티베트인들의 실상을 전하고, 한국 불교에 대해 차분히 공부하고 싶었던 리처드 기어가 가는 곳마다 영화 이야기만 나와 답답해했다는 발언도 전했다. 실제로 리처드 기어의 방한을 담당했던 기획사측은 사전에 기자들에게 정치적 질문은 자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부루나 회원들은 리처드 기어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을 남기고 있다.

P씨는 “스님들도 배우로 대접했다는 이야길 듣고 마음이 무척 아팠다. 스님들께

서도 그랬으니 다른 분들은 더욱 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그동안 불교계가 얼마나 가위눌려 불교다운 이야기를 못해 왔는지 다시금 반성하고 불자를 불자답게 대접하는 문화가 빨리 자리 잡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씨는 “리처드 기어의 한국방문의 목적이 티베트에서 기어가 찍은 사진전을 (완곡하게)표방한 것 자체가 리처드 기어의 이번 한국방문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사진심도 필요없을 정도로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닌가”며 “실망스럽게도, 스님들은 정치적인 입장개산인지 영종하고 명정한 눈치로 알아서 입을 다물었다. 기어는 적잖이 한국불교 대표라는 조계종단의 지극히 정치적으로 실리적인 분위기에 절감하고 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K씨는 “아무 생각 없이(준비 없이) 리처드 기어를 맞이하고 정부가 싫어할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는 종단의 저자세, 굴욕적 자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대장경 천년홍보 각계에서 나서

명예홍보대사에 텔런트 박상원 등 8인 선정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명예홍보대사에 텔런트 박상원, 인제대 교수 이만기, 소설가 조정래, 영화감독 강제규, 시골의사 박경철,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 등 8인이 선정됐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두관)는 9월 23일 경남 합천에서 열리는 축전의 성공개최와 국민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포, 스포츠, 연예계를 대표하는 8인을 축전 명예홍보대사에 위촉했다. 또 축전 해외 홍보를 위해 세페리노 발데스 주한 파라과이 대사와 남미기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도 명예홍보대사로 함께 위촉했다.

이들 8인의 명예홍보대사는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을 국내외에 알리고, 대장경 천년의 의미와 가치를 전파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축전 명예홍보대사로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이희아 씨가 포함됐다. 이희아 씨는 지난 6월 19일 열린 대장경천년기념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희아 씨는 “팔만대장경은 우리 선조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1천년 동안 보존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축전이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본받아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2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국제포교사(승려, 재가 법사) 품수식 -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와 헌신의 뜻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웬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병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

- 일 시 : 8월 18일, 수계의식 6박 7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신청기간 : 7월 10일까지 모든 서류 접수 완료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범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